'국뽕'·K신파 걷어낸 류승완표 묵직한 탈출극…'모가디슈'

류승완 감독, 남북 대사관들의 생존 탈출 실화

아프리카 무대… 내전의 먹먹한 울림 담은 영화

'베를린'·'베테랑' 등을 연출한 히트 메이커 류승완 감독이 주특기인 액션의 힘을 빼고 남북의 생존 드라마를 들고 관객을 찾아왔다.

남과 북의 이야기때 애국 코드인 일명 '국뽕'(국수주의)이나 K-신파와도 거리를 뒀다. 아프리카를 무대로 내전의 먹먹한 울림과 필사의 탈출을 담은 '모가디슈'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영화의 시대 배경이 되는 1991년은 대한민국이 유엔(UN) 회원국에 가입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UN 가입을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투표권을 가장 많이 가진 아프리카에서 외교 총력전을 펼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신성 대사(김윤석)와 안기부 출신의 정보 요원 강대진 참사관(조인성)이, 북한에서는 림용수 대사(허준호)와 태준기 참사관(구교환)이 UN 회원국 가입을 위해 사활을 건다.

당시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대외 외교를 시작했기에, 외교적 우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국제 사회에 인정받기 시작한 때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뻔히 아는 남북은 꼼수와 공작 속에 외교전을 이어간다.

그러던 그때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난다. 통신마저 끊긴 그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북한은 믿었던 정보원을 앞세운 반군에 대사관을 침탈당하는 위기를 맞는다. 우호국인 중국 대사관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마지막 선택으로 남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동행이 시작된다.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유대가 느껴지지만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치색은 걷어내 불필요한 논쟁은 사전에 차단했다. 영화의 초점은 필사의 생존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한배를 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뜨겁게 그린다. 여기에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벌이는 내전과 위기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이 먹먹함을 더한다.

드라마가 강조된 장르지만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총격전과 카체이싱은 숨 막히는 액션 시퀀스로 긴장감을 선사한다.

무거운 설정에도 잃지 않은 소소한 유머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마치 내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날 것의 생생함을 구현해 영화를 보는 내내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전쟁의 참혹함은 물론 이를 맞닥뜨린 인물들의 공포와 불안, 안타까움이 뒤섞여 오랜 여운을 남긴다.

영화는 코로나19 확산 전 여행금지 국가인 소말리아 대신 모로코 현지에서 촬영을 마쳤다.

100% 올로케이션을 진행하며 웅장한 분위기를 구현, 이국적인 풍광 자체가 영화 속 또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가벼운 오락물은 아니다.

묵직한 시대적 배경과 설정이 스크린을 장악하는 가운데 리얼리티를 살린 절제된 감동이 흥행 성적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너는 나의 봄' 남규리, 서현진 앞에서 오열하는 이유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 서현진과 남규리가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치유했다.

오늘 오후 9시 방송되는 '너는 나의 봄' 7회에서는 강다정(서현진 분)과 남규리(안가영 분)가 서로 가슴 먹먹한 눈물 고백을 예고했다.

강다정의 집에서 칩거하던 안가영은 맥주를 들고 옥상으로 나온 후 강다정에게 태연하게 건네 강다정을 당황시킨다.

이내 톡톡 튀는 화법으로 강다정을 놀라게 만든 안가영은 깊게 묻어뒀던 속마음을 꺼내며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

제작사 화앤담픽쳐스는 "악연인 듯 인연으로 연결 된 강다정-안가영의 특별하고 색다른 워맨스를 이번 주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뉴시스

아이돌×키즈팝 협업 한창…이유는?

오는 29일 '꼬마버스 타요' 리메이크 음원 발매

K팝 아이돌과 유아동 콘텐츠에서 비롯된 '키즈팝(Kid's Pop)'의 협업이 활발하다.

24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그룹 '엔하이픈(ENHYPEN)'은 오는 29일 '꼬마버스 타요' 주제곡 '헤이 타요(Hey Tayo)'의 리메이크 음원을 발매한다. '헤이 타요'는 경쾌한 기타와 리드미컬한 베이스가 어우러진 디스코 팝 장르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꼬마버스 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뮤직비디오엔 엔하이픈 멤버 정원, 희승, 제이, 제이크, 성훈, 선우, 니키도 만날 수 있다.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들과 함께한 이번 뮤직비디오는 애니메이션 세계관에 등장하는 버스 차고지부터 서울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멤버들의 역동적 안무도 선보인다. 다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핸들을 돌리는 듯한 포인트 안무에 방점을 찍었다.

또 엔하이픈과 꼬마버스 타요는 키즈팝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싱글 '빌리 포코'도 추후 공개한다.

떠오르는 K팝 아이돌과 키즈팝의 협업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세 그룹 '엔시티 드림(NCT DREAM)'과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의 유·아동 브랜드 핑크퐁도 지난 5월 협업을 선보였다.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 곡 '맛(Hot Sauce)'을 핑크퐁 스타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인기를 누렸다. NCT 드림이 공룡이 살던 시대에 불시착해 공룡들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등 7명 멤버가 개인별 특징을 살려 핑크퐁 공룡 코스튬을 입은 캐릭터로 변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캐릭터 스페셜 상품도 선보였다.

걸그룹들은 이미 이런 종류의 협업을 선점했다.

그룹 '모모랜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주제곡 '바나나차차'로 초통령·유통령으로 등극했다.

모모랜드는 '뿜뿜', '배엠(BAAM)', '아임 소 핫(I'm So Hot)' 등을 히트시킨 그룹. 이 팀이 부른 '바나나차차'는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와 바나나에 미끄러지듯 장난기 있게 엉덩이를 실룩대는 안무로 초등학생과 영유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차세대 K팝 그룹으로 지목되는 '이달의 소녀'(LOONA) 멤버 여진, 김립, 최리, 고원이 참여한 코코몽 캐릭터송 '얌얌(Yum-Yum)'은 지난달 공개됐다. '얌얌'은 코코몽 세계관인 냉장고 나라와 소시지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제목처럼 앙증맞은 포인트 안무까지 더해졌다. 더불어 3D 코코몽과 이달의 소녀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화보도 함께 선보였다.

인기 걸그룹 '오마이걸'도 '뽀마이걸'이라는 이름으로 뽀로로와 함께 프로젝트 곡 '슈파듀파'(SUPADUPA), '보글보글' 등을 잇따라 선보였다.

K팝과 키즈팝의 이종교배가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양 측 모두 대표적 한류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

엔하이픈이 부른 원곡 '헤이 타요'는 이미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3억 뷰 이상을 기록한 히트곡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10~2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엔하이픈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엔터계의 큰 손' CJ ENM이 협업한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의 K팝 기대주다. 이미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런 두 팀이 협업할 경우, 해외에서 더 넓은 팬층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범키×베이빌론 신곡 오늘 발매

가수 범키가 베이빌론이 피처링한 신곡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를 발매한다.

브랜뉴뮤직은 공식 SNS채널들을 통해 범키가 신곡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범키는 지난 5월 마마무 문별과 함께한 싱글 '더 레이디(The Lady)'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로 베이빌론과 합을 맞추며 알앤비 보컬리스트로서 행보를 이어나간다.

슈퍼주니어, 대만서 '2021 상반기 한국가수' 1위

3월 발매된 정규 10집 트랙 전부 톱20 내에 진입

그룹 '슈퍼주니어'가 대만에서 인기를 재차 확인했다.

24일 소속사 레이블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대만 최대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선정 '2021 KKBOX 상반기 톱 5 한국 가수'(2021 KKBOX Mid-Year Top 5 Korean Singers) 1위에 올랐다.

슈퍼주니어는 올해 상반기 KKBOX 유저들의 스트림 지수를 기반으로 뽑힌 '2021 KKBOX 미드 이어 톱 5 코리안 싱어스'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차트에서 멤버 예성이 4위에 올랐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최다 인기 20곡을 선정한 '2021 KKBOX 상반기 톱 10 한국어 곡' 부문에서는 2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슈퍼주니어의 노래가 랭크됐다.

지난 3월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 10 트랙이 전부 톱20 내에 진입했다.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올라

올해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이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트로트 가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위는 임영웅, 2위는 이찬원, 3위는 박군이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빅데이터 6345만6627개를 추출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측정해 브랜드평판 지수를 분석했다.

올해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30위는 임영웅·이찬원·박군·영탁·송가인·나훈아·장윤정·정동원·김희재·장민호·홍진영·최백호·김수찬·남진·홍지윤·양지은·진성·나태주·강진·김연자·설운도·김다현·주현미·태진아·진해성·신유·홍자·박상철·이승연·마리아 순이었다.

구창환 기업평판연구소장은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돌파하다, 발매하다, 격리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선 '이제 나만 믿어요, 자가격리,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며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67.0% 기록했다"고 했다.

엔하이픈 "창의적 작업, 더 관여하려고 해요"

글로벌 그룹,한국·호주·일본·미국 출신 다국적 멤버 구성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Forbes)'와 인터뷰했다.

24일 소속사 빌리프랩에 따르면, 포브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엔하이픈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K-팝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Jeff Benjamin)과 가진 이번 인터뷰에서 엔하이픈은 지난 앨범의 성과와 일본에서 발표한 데뷔 싱글,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브스는 먼저 지난 앨범 성과에 주목했다.

특히, 엔하이픈이 올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앨범 '보더 : 카니발(BORDER : CARNIVAL)'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8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 '보더 : 하카나이'로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에서 7일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을 두고 "데뷔 직후부터 음악계에서 돋보이는 행보를 보여 왔다"라고 주목했다.

포브스는 이어 "한국, 호주, 일본, 미국 출신의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엔하이픈은 커리어 초기 신인에게서 보기 드문 진정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차트에 오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고도 호평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보더 : 데이 원'의 타이틀곡 '기븐-테이큰', '보더 : 카니발' 타이틀곡과 수록곡인 '드렁큰-데이즈드', '별 안간'에 대해 포브스는 "일렉트로 팝(electro-pop)과 록 사운드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7명의 솔직한 경험담을 담아 (그 의미를) 배가시켰다"라고 전했다.